

제10장 - 포스트구조주의 지리를 향하여

Cresswell, T. (2024). *지리사상사*. (박경환, 류연택, 심승희, 정현주, 서태동, 역). 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24년)
지리사상사 세미나
2025.08.05
최경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쟁이 고조된 이후 인문지리학은 하나의 주류 이론이 거의 없으며, 다양한 이론으로 균열되어 있다. 메타서사, 토대, 본질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지리학 내에서 커다란 이론적 변화를 추구하던 것을 끝내는 것에 일조했다. 이론은 더 이상 타 이론의 발상에 대해 우월한 발상을 함으로써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발상들이 담겨있는 도구상자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접근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구조주의는 매우 다양한 일련의 사고들을 지칭한다.

지리사상에서의 구조와 행위 주체성

포스트구조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주체성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의 행위는 구조에 의해 조종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인문지리학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 및 대부분의 철학사를 관통한다. 지리학에서는 (구조주의자로서의) 마르크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로서의) 인본주의자 간의 논쟁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구조주의(structuralism)란 외관상의 세계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심오한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다양한 사고의 집합체를 지칭한다. 지리학에서 이러한 사고군은 마르크스주의, 환경결정론으로 대표되며, 심지어 구조주의의 정반대라고 생각되는 인본주의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구조주의는 언어와 문화 수준에서도 작동한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일반 언어학"에서 언어는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특정 방식들에서 언어를 의미 있게 하는 "심오한" 구조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서로 다른 문화의 표면적 양상을 설명하는 인간 사고의 내재적 패턴이 존재하며, 이런 패턴은 규칙과 같은 행동을 따른다.

토르스텐 해거스트란트(Torsten Hägerstrand)가 창시한 시간지리학은 개인의 삶을 시공간 속에서 연속적인 경로로 파악한다. 그 경로는 다양한 신체적 제약인 '능력 제약(capability constraint),' 타인과의 만남을 위한 '결합 제약(coupling constraint),' 그리고 사회적 규칙에 의한 '권위 제약(authority constraints)'을 동반하는데, 그는 구조(제약)와 행위주체성(이동) 사이의 균형이 있다고 보았다. 시간지리학은 '공간'을 '시간'이라는 역동적인 축의 정적인 단면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이 둘을 합성함으로써 공간을 역동적으로 만들었으며, 혼성의 '공간-시간(space-time)'에 관해 사고한다. 이를 통해 지리학자들은 특정 공간이나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밝히는 맥락적 설명(contextual explanation)을 제공할 수 있다. 반대로 이에 대해 인간의 삶을 그림의 점과 선으로 축소시켰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와 같은 문화이론가들은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표면적으로 정반대인 특성을 연결하는 것을 추구해 구조와 행위주체성에 관한 논쟁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런 종류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는 구조화이론과 많은 것을 공유했으며, '신문화지리학'을 통해 지리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데 '필수적(구조적)' 조건과 '부수적(국지적인, 우연의, 대체 가능한)' 조건을 풀기 위한 접근이다. 실재론 하에서 이런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이론은 표면상의 '필수적' 원인에 대한 탐구가, 실증적 연구는 '부수적' 조건에 관한 것이 되었다.

구조와 행위자를 통합하려는 가장 체계적인 시도는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서 나타났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사회적 삶의 구조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시간지리학의 요소를 사용했으며, 이러한 구조화이론의 핵심은 '구조화'가 확고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주장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 사회의 구조적 속성은 개인적 수준에서 일상 행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표출되며, 이러한 일상 행동은 사회의 구조적 속성을 재생산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주관론'과 '객관론' 모두 불완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둘을 통합하기 위해 구조와 행위주체성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개념인 아비투스(habitus)를 제시했다. 아비투스는 구조화된 구조이면서, 동시에 구조화되는 구조로서, 개인이 의식적인 목표 없이도 사회적 규칙에 맞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만든 원리이다. 이를 장소에 적용하면 그것은 인간 행동의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너무 구조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포스트구조주의와 지리학

포스트구조주의는 일상적 삶보다 우선시되는 일관된 구조라는 관념을 버리고자 했다.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종종 혼용되지만, 조나단 머독(Jonathan Murdoch)의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Post-Structuralist Geography)』에 따르면 포스트구조주의는 하나의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다른 사회적 조건으로의 역사적 변동의 토대와 현대 사회의 특징을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데보라 디슨(Deborah Dixon)과 존 폴 존스(John Paul Jones III)는 삶의 요소를 적절한 범주로 나누고 그 범주 간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것에 근거하여 세상을 관찰하는 기존의 접근을 '격자 인식론(epistemology of grid)'라고 명명했다. 포스트구조주의자는 이것의 효용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상은 신문화지리학을 통해 지리학에 유입되었으며, 그 과정을 이끈 것은 피터 잭슨(Peter Jackson), 데니스 코스그로브(Denis Cosgrove), 스티븐 다니엘스(Stephen Daniels), 제임스 던컨(James Duncan) 등이었다.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는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이론을 발전시켜 제3의 공간이라

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의 공간의 이분법을 넘어 급진적 개방성, 연속성, 저항, 혼성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포스트구조주의적 사고를 보여준다.

푸코의 지리

지리학자들은 푸코가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1979)에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원형 교도소라는 특정 공간 장치를 통해 공간적 권력을 분석한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 푸코는 역사적으로 공간이 시간보다 저평가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공간이 권력 과정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권력 효과를 발생시키는 능동적인 장치임을 주장했다.

지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차용된 푸코의 개념은 담론(discourse)이다. 푸코의 담론은 일관적인 논리에 기초해서 새로운 형태의 진리를 생산하는 말, 행동, 제도, 하부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을 이데올로기 개념과 비교하자면, 이데올로기는 그 외부에 진리와 객관성이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지만, 담론은 그런 진리란 생산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데올로기는 상부구조에 속하지만, 담론은 토대(base)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푸코의 담론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지리학적이다. 첫째, 담론이라는 아이디어는 시공간적 맥락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둘째, 담론은 담론은 그것이 발생한 매우 구체적인 지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지리적 지식 자체 역시 담론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담론은 장소의 생산에, 그리고 장소 안에서의 사람들의 실천을 평가하는 데 깊이 관여한다.

결론

포스트구조주의는 지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포스트구조주의 역시 비판을 받았다. 모든 것이 담론에 의해 구성된다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페미니즘은 포스트구조주의 자체가 남성주의적(masculinist)이며, '젠더'가 담론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주장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해 그 정치적 기반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은 구조를 어떤 불변적인 것으로 미리 결정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따라서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맥락적인 설명의 기초로서 특수한 것을 추구한다.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 공간보다는 흐름, 네트워크, 주름진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사유하며, 무엇보다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공간의 능동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발제문 - 푸코의 담론이론으로 바라본 지역주의

서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철마다 여러 미디어에 나오는 특정 색채로 양분된 선거 지도는 매우 익숙한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지도는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를 가시화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재현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 차원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의가 역사적 갈등에서 기원하여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이라는 통념을 강화한다. 즉, 지역주의는 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본 발제에서는 지역감정이 역사적 '진실'에 기반해 자연발생한 감정이라는 통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discourse) 이론을 활용한다. 푸코에게 담론이란 단순한 언어적 진술을 넘어, 특정 대상에 대한 '진리'를 생산하고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언어, 실천, 제도의 총체적 복합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외부에 객관적 실재가 있지만, 권력이 그것을 왜곡해 스스로를 위해 사용한다는 이데올로기(ideology) 개념과는 명확히 구별된다. 다시 말해, 담론은 실재 그 자체를 구성하고 가동시키는 생산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본 발제는 한국의 지역주의는 역사적 '진실'의 필연적인 결과나 단순한 문화적 잔재가 아니라, 정치·언론 담론에 의해 능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며, 해당 담론은 객관적 현실을 중립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분할의 지도를 '진리'로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 권력 구조 유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첫째로 지역주의 담론이 '호남인'과 '영남인'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둘째로 선거 지도와 같은 시각적 재현물이 어떻게 분열의 지리를 객관적 현실로 고착시키며 권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역민'의 주체화

푸코의 이론에서 담론은 세계를 묘사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변화되어 생산되는 '주체'를 생산한다. 그는 이것을 '주체화(subjectivization)'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개인이 담론에 의해 특정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길들여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크레스웰(Cresswell, 2001)이 이러한 인식 속에서 방랑자(tramp)라는 주체가 사회학, 법률, 언론 등의 담론 형성과 함께 '만들어진' 것을 밝혀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지역민' 역시 이러한 담론적 구성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주의 담론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을 일반화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적인 주체인 '호남인' 또는 '영남인'으로 생산해낸다. 이는 각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본질적인 특

성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효용성을 위해 특정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재현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정치·언론 담론은 '호남인'이라는 주체를 역사적 차별의 경험으로 인해 특정 정당에 대한 감성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피해의식의 집단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반대로 '영남인'이라는 주체는 권위주의적 문화를 공유하며,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재현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현이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복잡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정치적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순화되고 고정된 '담론적 창조물'에 가깝다. 이러한 범주화는 개인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시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투표 행태를 보이는 지역 블록의 일원으로 만든다.

이러한 주체화 과정을 통한 담론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구체적인 장소, 즉 푸코가 언급하는 '담론이 발생하는 장소' 역시 명확히 존재한다. 이러한 담론을 선거 전략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당, 프레임을 짜는 언론사, 그리고 혐오 발언(hate speech)을 통해 관심을 끌고 여론을 형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지역주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를 통해 '지역민'이라는 주체는 끊임없이 주체화 되고, 그들의 정치적 선택은 기정사실화되며, 이는 다시 현실 정치에서 자기실현적 예언으로 작동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분열의 지도

한국의 지역주의 담론은 한국의 정치 지형이라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조직하는 권력의 핵심 기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담론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 시각화되고 공간화되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9장에서 논의된 브라이언 할리(Brian Harley)는 지도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 바깥에 존재하는 규범과 가치를 강화하고 반영하는"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 지도 역시 객관적인 투표 결과의 시각화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과 복합적인 유권자들의 투표 동기를 빨강과 파랑의 단순하고 강렬한 색과 동서(東西)의 이분법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담론적 장치이다. 이러한 지도는 '분열된 국토'라는 이미지를 하나의 '진리 효과'를 생산해내며,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의 본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한다.

2025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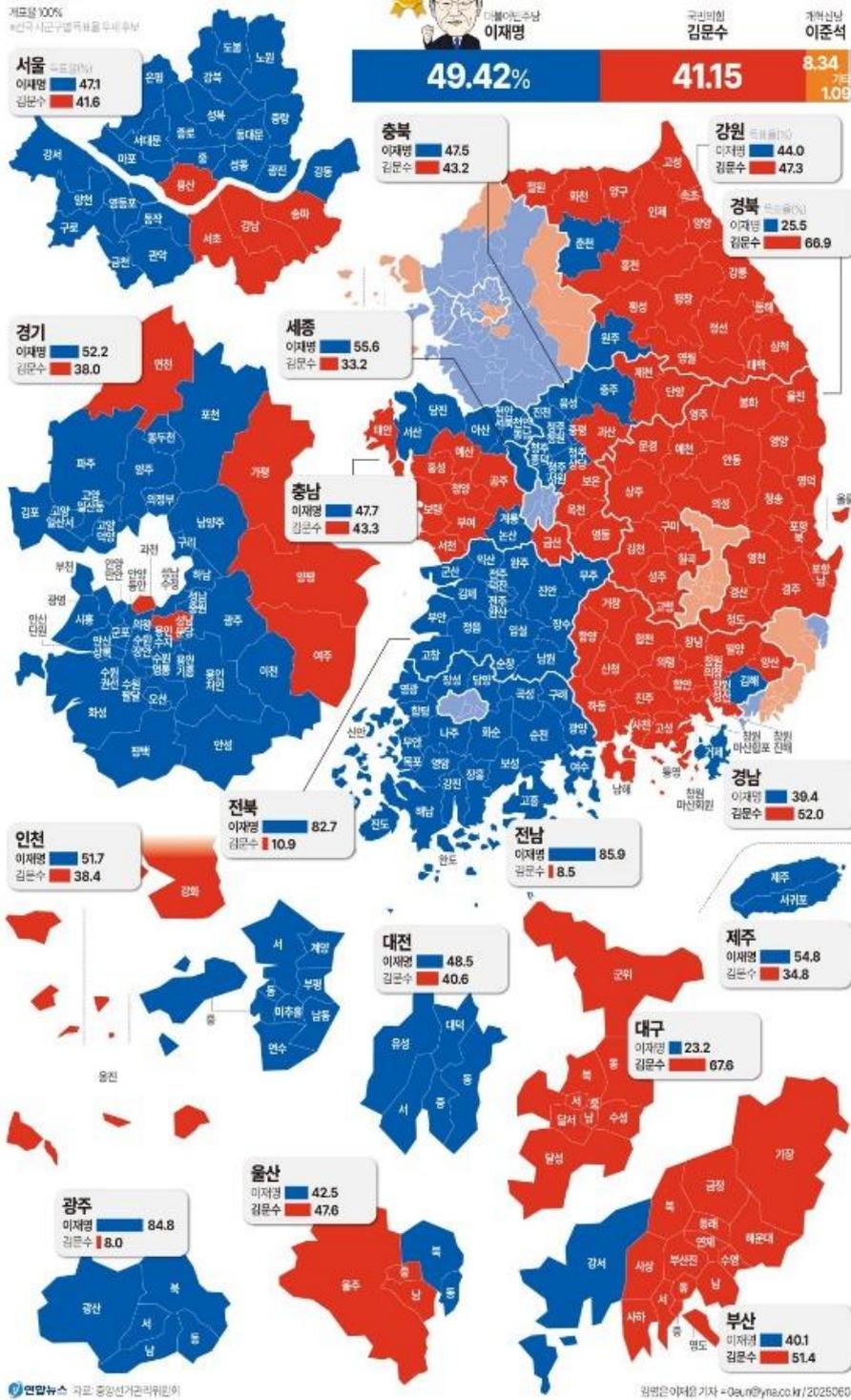


그림 1.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결과

(김민지, 이재윤 & 김영은. (2025년6월4일). [그래픽] 2025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결과(100% 개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50604001900044>)

이러한 담론적 지도가 생산하는 권력 효과는 명확하다. 첫째, 이 담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은 정책이나 비전의 경쟁이 아닌, 지역 정체성에 기반하여 유권자를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정치 엘리트이다. '우리 지역의 후보'라는 정치적 구호는 복잡한 논쟁을 건너뛰고 투표 행위를 감성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체성의 문제로 전환한다. 둘째, 지역주의 담론은 특정 지역 내에서 '우리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행위를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배신으로 규정하는 규율적 효과를 낳는다. 이는 푸코가 분석한 '감시'라는 자기 통제의 과정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지역감정은 자연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특정 정치 공간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권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치지리학적 전략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은 분열의 지도는 해당 전략의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도구이다.

결론

본 발제는 미셸 푸코의 담론 이론을 통해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주체와 공간을 생산하는 담론의 결과물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지역주의 담론은 '지역민'이라는 '주체'를 창조하고, 지도를 통해 이를 '진리'로 고착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치 권력의 유지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적 분석은 제10장 마지막에서 제기된 비판처럼 하나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만약 모든 진리가 담론의 효과일 뿐이라면, 우리는 어떤 객관적 근거로 지역주의 담론이 '틀렸다'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해 본 발제는 제럴딘 프랫(Geraldine Pratt)이 포스트구조주의적 접근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거나, 어떠한 윤리적, 정치적 판단도 불가능한 무(無)개념적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을 상기하고 싶다. 따라서 지역주의 담론 역시 특정 정치 권력의 유지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작동에 장애물이 된다고 비판할 수 있으며, 그것의 해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담론의 해체는 단순히 지역 간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 관계를 붕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